



## 사랑하는 우간다 선교 동역자님들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7)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을 위협하는 이런 저런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본은 오고 오는 신앙의 후손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것은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곤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앞길에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을 믿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개혁신학교 (RTC) 소식

어느덧 신학교의 2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어떻게 학생들과 영적, 학문적 도전을 나눌 것인지 계획하고 고민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기말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학기를 마감하면서 '강사 워십'을 통해, 신학교 교수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 신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을 재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워십에서는 아프리카 토양에서 서구신학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 토론하고, 아프리카 교회에 필요한 신학의 방향성 등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격려사를 통해 저는 신학교의 모든 교수요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정병”됨을 각인하고,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자”는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개혁신학교가 단지 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간다와 동아프리카의 교회를 책임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TC 축제 장면



## 단기 선교사 소식

그 동안 수고했던 자매 단기 선교사들이 우간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진하늘, 김현희, 김선주 세 자매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박수를 보내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간다에 도착할 때부터 저와 함께 '미션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통해 비전과 도전을 나누었던 하늘, 현희 두 자매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말씀과 비전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자매 모두 앞으로의 진로와 결혼 등에까지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RTC 교회 소식

RTC 교회는 신학교 채플을 이용해 주일에 캠퍼스에 남아있는 신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학생들만 모이는 주중의 채플과 달리, 남녀노소 지역 주민들, 특히 인근 고등학교의 젊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일예배는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성도 가운데 긴 세월을 독거노인으로 살아온 분들이나 부양할 자녀들을 거느린 에이즈 환자 과부들을 대할 때마다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라는 질문은 쉽게 답이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그저 교회에서 주는 작은 도움들이 저들에게 필요한 공급과 사랑의 행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한 편, 주일 예배에 간간히 개혁 신학교의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곤 합니다.

1990년 대 중반, 신학교 초기 '생사고락(?)'의 순간들을 함께 했던 학생들이 졸업하여 이제는 의연히 우간다 교회의 한 귀퉁이를 책임지는 든든한 사역자들로 서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뭉클한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중, 10 수년 전 그때 그 시절은 그리도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는데, 소위 "요즘 신학생들은 왜 이리 뻔질(?)거리냐 는 식의 험담을 하다보면, 언젠가 현재 재학생들과도 이런 추억을 나누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교회 성도 에마와 수잔의 결혼식

## 가족 소식



교회 에이즈 환자 성도들과의 면담

아내 박주리 선교사가 약 3년 전부터 목 디스크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안식년 때 손목터널 증후군 증세가 심한 왼손을 수술하였지요. 그 후에도 목 디스크와 오른손의 손목 터널 증후군 증세로 여전히 힘들어했으나, 물리치료와 스트레칭 등의 방법으로 치료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식년 복귀 후 사역에 몰입하면서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1월 경에 치료 차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중에 혼자 여행하는 긴 여정과 홀로 감당해야 할 병원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찬, 예원이는 은혜 중에 대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찬이는 학업(Univ. of the South), 아르바이트 외에 캠퍼스의 성경공부 모임의 책임을 맡으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전도가 쉽지 않아 나름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예원이는 여전히 캠퍼스(Calvin College)의 찬양 사역과 더불어 한인교회 내 영어 예배부의 찬양 인도를 통해 사역의 보람과 애환이 어떤 것인지 맛보는 거 같습니다. 둘 다 말씀안에서 잘 훈련받아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쓰이는 일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1. 연말연시 불안해지기 쉬운 우간다의 치안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해
2. 12월에 있을 선교부 컨퍼런스가 선교부의 팀 워를 다지고 선교의 소명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3. 방학 기간에 사역지로 돌아간 신학생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학비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4. 선교부내에 건강이 연약한 선교사들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치료 차 한국을 방문하는 박주리 선교사의 건강회복을 위해
5. 대학 4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인 예찬, 예원이의 학업과 군 복무(예정),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